

자료제공: 8월 9일(수)

이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동행·매력
특별시서울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문화본부 문화정책과

문화정책과장

전재명

2133-2510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2쪽

서울시, 한강·광화문 댄스나이트 행사에 잼버리 2500여명 참여

- 광화문 1,300명, 한강 1,200명 등 각국 대원들 한자리에 만나 서울의 밤 즐겨
- EDM 디제잉, 비보잉, K-재즈와 힙합까지...언어장벽 없이 문화·예술 교류
- 시, 안전 최우선으로 공연장 관리...영어가능요원 곳곳에 배치해 원활한 행사 도와

- 9일(수) 저녁, 광화문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<웰컴 투 서울 댄스 나이트>행사가 시민과 잼버리 대원들의 뜨거운 참여와 호응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.
- 서울시는 서울과 수도권 등지에서 머무르는 대원들을 위해 서울의 랜드마크 ‘광화문’과 ‘한강’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‘웰컴 투 서울 댄스나이트’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.
- 이번 행사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은 광화문 1,300여 명, 여의도 한강공원 1,200여 명 등 총 2,500여 명 규모. 이들은 언어의 장벽없이 흥겨운 음악을 매개로 문화적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모습을 보였다.

- 먼저 ‘광화문’ 놀이마당과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댄스나이트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과 익숙한 장르로 구성된 EDM 디제잉으로 대원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.
- 스위스, 대만, 마케도니아 대원들이 대거 참여한 ‘한강’ 행사에서는 EDM은 물론 국악을 접목한 K-재즈부터 역동적인 비보잉, 힙합 등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과 전 세계인들의 환호가 어우러진 시간이었다.
- 한편, 시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참여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연장과 주변을 관리했으며, 영어 가능 안내 요원을 곳곳에 배치해 원활한 행사를 도왔다.
- 이번 광화문과 한강 행사에서 주목할 점을 스카우트 정신이 행사 곳곳에서 빛났다는 것. 대원들은 자신이 즐겼던 자리의 쓰레기를 스스로 치우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고, 수 천여명이 놀다 간 자리였지만 단 시간 깨끗하게 제자리를 찾았다는 후문이다.
- 서울시 관계자는 “세계 각국의 잼버리 단원들이 서울의 랜드마크인 한강과 광화문에서 음악이라는 세계 공통의 언어 아래 화합하고 문화를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”며 “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에 봉사정신까지 더해져 행사가 더욱 빛났다”고 말했다.